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1.21. ~ 1.27.)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창 22 - 28	마 21 - 27
	개인	느 11 - 에 4	행 21 - 27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다섯 오직(2) - 오직 성경(2)		
	<p style="text-align: center;">요 5:39</p> <p>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 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p>		



1월 21일(월)

창22	마21	느11	행21
-----	-----	-----	-----

사도행전 21장 / 죽을 각오

개요

- 1-16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감
- 17-26 바울이 야고보를 만남
- 27-40 바울이 잡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나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그를 막습니다(1-6절). 두로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당할 고난을 경고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를 권하나, 바울은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10-15절).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자기 사역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나눕니다(17-19절).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로 인해 걱정합니다(20-22절). 그로 인해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 보이도록 서원한 자를 돕도록 합니다(23,24절). 바울은 그들의 권고를 따릅니다(26절). 바울은 서원한 자들을 돕고 결례의식을 따라 7일 후 성전으로 들어 갑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부추겨 그를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27-30절). 이때 천부장과 군인들이 소란으로 인해 출동하고, 바울을 데려갑니다(31-36절). 바울은 천부장에게 요청하여 자기가 변호할 기회를 얻습니다(37-40절).

바울은 자신을 위해 걱정하고 우는 자들을 위로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13절). 그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20:22). 성령님은 거기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20:23). 성령님은 제자들과 아가보에게도 이를 알려주셨는데, 이들은 그로 인해 바울을 걱정하고 그를 막아섭니다. 반면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때로는 예상되는 반대와 어려움을 앞두고 가야할 길도 있습니다.

* 서원을 한 자들은 머리를 깎지 않고 있다가(민 6장 참조),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 머리털을 깎아 제단 위에서 태웠는데, 서원한 자들이 머리를 깎고 제사드리는 비용을 담당한 자는 대단히 경건하여, 서원 행위에 동참하는 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1월 22일(화)

창23

마22

누12

행22

사도행전 22장 / 부르심 따라 - 바울의 1차 변호

개요

1-29 바울의 변호
30 공회 앞의 바울

바울은 히브리말로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1,2절). 자신의 출신을 밝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이야기합니다(3-5절).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인해 회심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6-21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란스럽게 외치며 죽이려고 합니다(22,23절). 하지만 천부장이 그를 데려가 심문하려고 합니다(24절). 그런데 바울이 그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자, 시민권을 둔 주고 산 천부장은 놀라 그의 결박을 풀고 공회 앞에 그를 세웁니다(25-30절).

바울은 자기 신분을 적극 활용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로마인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변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만일 그가 처음부터 로마인임을 밝혔다면 그런 기회는 없었을런지 모릅니다. 또 변호를 마치고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혀 공식적인 재판절차를 밟게 하여, 공회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어느 때를 위함인지 모릅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고 서있는 것이 얼마나 중한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잘 견디고 서있게 하시고, 뜻이 있어 부르실 때 망설임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1월 23일(수)

창24

마23

누13

행23

사도행전 23장 / 바리새인 바울 - 바울의 2차 변호

개요

- 1-11 공회 앞에 선 바울
- 12-30 바울을 해하려는 간계
- 31-35 벨릭스 총독 앞으로

바울은 공회 앞에서 당당히 자기 신앙을 밝힙니다(1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하나,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라고 응수합니다(2,3절). 그는 청중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바리새인 출신인 것과 부활할 자임을 밝힙니다(6절). 그의 말로 인해,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분쟁을 일어납니다(6-10절). 주님은 바울을 격려하십니다(11절).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자들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하여 은밀히 벨릭스 총독에게로 가게 됩니다(12-24절). 천부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가 로마 시민인 것과 율법의 문제 외에 법적 문제가 없음을 밝힙니다(25-30절). 그는 군인들의 호위를 받고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을 만납니다(31-35절).

예수님이 무죄선언을 받았던 것처럼, 바울도 그의 무죄함을 인정받습니다. 종교적인 의견 대립 외에 어떤 법적 문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위한 변호는 문제를 선명하게 해줍니다. 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고백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름이 드러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복음을 위한 고난 외에 다른 문제로 비방받는 일이 없는 사람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심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창25	마24	에1	행24
-----	-----	----	-----

사도행전 24장 / 예수를 믿는 도 - 바울의 3차 변호

개요

- 1-9 더둘로의 고발
- 10-23 바울의 변호와 결과
- 24-27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1절).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로서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자이며,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합니다(2-9절). 바울은 이에 대답하기를, 먼저 자신을 향한 거짓말을 밝힙니다(10-13절). 그리고 자신이 믿는 도가 소망이 있으며, 또한 소동을 일으키지 않음을 변호합니다(14-21절). 벨릭스 총독은 이 말을 듣고 더둘로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문제가 없음을 보고, 천부장 루시아를 들어 판결을 유보합니다(22절). 그리고 바울에게 제한적이지만 자유를 허락합니다(23절). 벨릭스는 바울에게서는 돈을 바라며 자주 그와 이야기하였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2년을 구류하여둡니다(24-27절).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출신과 배경을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벨릭스의 욕심 때문에 복음을 왜곡하거나 가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대로, 또 그의 불의한 상황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거침없이 말합니다(25절). 실제로 벨릭스는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울이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 예수님만을 증언합니다(눅 21:12,13).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말과 삶으로 살아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우리를 두신 곳에서 주님의 도를 말과 삶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건
의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창26	마25	에2	행25
-----	-----	----	-----

사도행전 25장 / 바울의 상소 - 바울의 4차 변호

개요

- 1-12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함
- 13-27 바울이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 앞에 섬

벨릭스 총독은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하기까지 바울을 잡아두었습니다(행 24:27).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2절). 베스도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 그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은밀히 죽이고자 그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달라고 청합니다(3절). 그러나 베스도는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열기로 합니다(4,5절). 가이사라에서 열린 재판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증거를 대지 못하고, 바울은 오히려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여, 가이사의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6-12절). 이때 즈음 베스도의 총독 부임을 축하하러 온 아그립바와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는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13-21절). 아그립바는 직접 바울에게 말을 듣고자 합니다(22절). 황제에게 상소할 죄목을 밝히기 위해 바울은 아그립바 앞에 서게 됩니다(23-27절).

사람들은 바울의 처지를 '그 죄목은 정치적인 것이었으며, 그런데도 그 증거는 신학적이었다'고 정확히 말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한편 바울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불의와 분노, 그리고 호기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노가 되고 원동력이 되어 바울을 점점 로마로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은 이렇듯 알 수 없습니다. 진리는 분명하나, 진리가 가는 길은 미로와도 같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신자의 삶의 여정은 어느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모호해보입니다. 주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26장 / 진리의 빛으로 - 바울의 5차 변호

개요

1-23 아그립바 앞에서의 변호

24-32 바울의 전도와 결과

바울이 아그립바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1-23절). 자신이 유대인으로 산 삶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한 후,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합니다. 그의 말은 이렇게 맺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23절) 베스도는 크게 소리쳐 바울이 미쳤다고 합니다(24절). 그러나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아그립바 왕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25-27절). 하지만 아그립바는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28절). 아그립바는 바울 자신이 상소한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합니다(32절).

복음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18절). 아담은 첫 범죄 때 금지된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진 것 같았으나, 어둠에 빠졌습니다. 죄에 밝은 자가 되었고, 빛에 어두운 자가 되었습니다. 참 빛을 본 자가 어둠을 깨닫고 난 후에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두움의 비참함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눈 뜬 자가 눈을 감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미친 사람 취급 당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14절): 로마인과 헬라인에게 잘 알려진 속담. 신들이 정해준 운명을 거스르는 행위는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일깨우는 말.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하나님, 우리를 진리에 눈 뜨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죄의 비참함으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창28	마27	에4	행27
-----	-----	----	-----

사도행전 27장 / 로마를 향해

개요

- 1-26 로마로 가는 배
- 27-44 유라굴로 풍랑과 구조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져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1절). 율리오는 바울을 신뢰하여 친절하게 대합니다(3절). 풍랑으로 인해 항해가 길어지고 위태해지자 백부장을 권하여 항해를 만류하나, 그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또 다수 사람들의 말을 따라 항해를 계속합니다(9-13절).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여러 날 동안 표류하게 되고,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낙심합니다(14-20절).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이 가이사 앞에 서야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21-26절). 그리고 바울의 말과 같이 배에 있는 모든 자 276명이 구조됩니다(27-44절).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바울의 무죄함과 그의 증언의 진실함을 나타내십니다. 그의 말대로 모든 사람이 다치지 않고 배가 파선되었지만 모두 구조됩니다. 선지자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짐으로 그의 진실함이 증명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의 진실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증언하기 위해 로마로 부름을 받았습니다(행 23:11).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의 증인으로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바울과 같이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이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입니다(고후 6:9,10).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되게 하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

날짜 :

--	--

❖ 설교 노트

본문 :

날짜 :

--	--

* 순모임 나눔

도시 -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

◆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유대 사회의 지도층은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포로된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1. 예레미야 29장 4-7절을 읽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바벨론 도시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답해보세요.

4.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지지 아니하게 하라
7.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렘29:4-7)

2. 예레미야 29장 7절, 11절에서,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यो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는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3. 예레미야 29장 11-14절에서 알 수 있는 포로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यो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로마 세계의 도시 문명 속에서 삶의 빈곤, 혼돈, 공포, 야만성에 대항하여 일어난 재생운동(revitalization)으로 가능했다. 기독교는 도시에 삶을 새롭게 하는 활력을 불어넣었다.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을 제공하여 많은 긴급한 문제들을 대처하도록 도운 것이다.

기독교는 노숙자와 빈곤층으로 가득한 도시에 자신뿐 아니라 희망을 제공했다. 또한 기독교는 이주자와 이방인들로 가득한 도시에 즉각적인 연결고리의 토대를 제공했으며 민족 간 격렬한 갈등으로 찢겨진 도시에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토대를 제공했다.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들에게 기독교는 효과적인 봉사의 표본이 되었다.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가 도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스-로마 세계 속에 기독교의 영향을 돌아보게 한다. 오늘날의 기독교에도 이러한 모습이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기독교가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삶을 새롭게 하는 활력'이 되는가?

5. 팀 켈러는 도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 살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들과 동화되어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길 원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영적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들에게 가장 뜻밖의 말씀을 전하셨다. 도시 안으로 들어가 살면서 그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영적 정체성으로 도시를 섬기라는 말씀이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도시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아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처럼 지금도 도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 도시는 특히 그렇게 할 많은 기회를 준다. 고대 도시는 여자, 어린 아이, 소수 민족, 이민자 등의 사람들이 몰려든 피난처였으며, 법치가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곳이었으며, 새로운 문화가 움트는 곳이었으며, 성당 탑 등으로 믿음을 표현한 영적 추구가 이루어지도록 디자인된 곳이었다.

당신은 당신이 거하고 있는 도시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재미와 자신의 경력을 위해 도시를 이용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팀 켈러의 메시지를 읽고 새롭게 다가온 것은 무엇인가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킨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 인도에서 태어나 도시목회를 연구한 마노카란(J.N. Manokaran) 목사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와 도시들'(Christ and cities)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래 인용글을 읽고 내가 사는 도시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그곳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내가 사는 도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대답해보세요.

세계선교학 교수인 로저 그린웨이(Roger Greenway)는 말한다. "도시화가 지금 삶의 현실이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나는 현실임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거대한 사람들의 군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의 기회를 교회에 주신다.

다양한 집단들이 대도시 안에 고밀도로 모여서, 지리적으로 이전 어느 때보다 더 그들에게 다가가기 쉬워졌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신다. 사람들은 서로서로 더 가깝게 접촉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복음이 들릴 수 있는 거리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런 운동에 의하여 역사 속에서 그분의 구원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시대의 표지는 도시이다. 도시로 밀려드는 전 세계적 이민의 물결을 통해 하나님은 선교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

7. 종종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평가에 동의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에 깊이 참여하도록 부르셔서 세상을 섬기도록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영적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문화가 더욱 세속화되면서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고대 헬라인들과 현대 사상은 믿음과 신앙을 삶과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이원론'(dualism)이라고 부른다. 이원론은 개인적 신념과 신앙을 우리가 세상에서 실제로 살고 일하는 방식과 분리한다. 더욱이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적인 교회사역을 통하는 것뿐이라는 가정으로 연결된다. 성경공부, 전도, 제자훈련 등, 교회활동은 선하고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세속 세계는 나쁘고 오염된 것으로 본다. 많은 직장은 지나친 경쟁, 피상성, 정치적, 탐욕, 그리고 잔인함으로 만연하다. 세속 직업을 버리고 단지 기독교 공동체의 범위 내에만 있기를 종용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시간을 보다 익숙하고 쉬운 환경에서 보내고 싶어한다. 그렇게 점점 문화적 영향력이 있는 장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멀어지게 하고 말았다.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 - 일, 가정, 시민적 참여, 여가 등 - 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이셔야 한다. 개인 삶의 영역만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삶의 모든 과업을 수행하는 동기, 태도, 방법을 만들어 내고 영향을 끼친다.

8. 나는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일방적인 동화나 회피가 아니라, 도시의 평화(Shalom, 렘 29:7)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

- 우리는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섬기기로 결정한 후 그들을 민족이나 계급이나 학벌에 관계없이 대한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정의를 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평화 그리고 정의가 깨어진 세상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 우리는 창조성과 관계성 그리고 탁월성의 측면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경작한다.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성장을 돕는다. 사람들의 갈망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은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함이었다(렘 29:7).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도시를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특별한 목적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기
-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기도를 시작하기
- 복음이 어떻게 직장에서 상황을 변화시키는지 더욱 인지하기
- 믿음을 가까운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보다 담대하게, 끈질기게, 사랑스럽게, 그리고 기쁘게 나눌지 찾아보기

9. 한 주간 읽고 묵상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10.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제목을 나눠봅시다.